

다이쇼인 절: 헨조쿠쓰

‘광활한 빛의 공간’이라는 뜻의 헨조쿠쓰(遍照窟)는 다이시도 바로 아래에 위치한 지하실입니다. 여기서 ‘광활한 빛’이란 부처의 빛을 나타내는데, 이 빛에 이끌려 부처를 믿는 모든 중생들은 세속적인 삶의 어둠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. 봉남자의 이름이 새겨진 수백 개의 구리 조명을 천장에 매단 이곳은 방 전체가 조명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빛으로 가득합니다.

헨조쿠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실내 벽을 가득 뒤덮고 있는 88구의 불상들은 시코쿠 순례(시코쿠의 성지를 순례하는 여행)로 찾아가는 88 개소 사원의 본존을 나타냅니다. 총 1,200km에 이르는 시코쿠 순례는 완주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모든 사원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88 개소를 순례하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. 각 불상 앞에 깔린 네모난 타일 아래에는 불상을 모시고 있는 절에서 가져온 한 자루의 모래가 들어 있습니다. 이 모래는 불상을 모시고 있는 절의 경내를 의미하며, 모래를 밟으면 실제 사원을 찾아 참배한 사람과 똑같은 부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실내 중앙에는 조금 더 큰 불상이 2 열로 진열되어 있습니다. (입구에서 바라봤을 때) 왼쪽 줄은 십이지의 동물을 나타내며, 오른쪽 줄에 진열된 13 구는 불교식 전통 장례에 관한 부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실내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아미타여래상 2 구가 여기에 있는 모든 불상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